

브릭스의 출현과 그로 인한 무역관계, 국제통화관계에서의 주요변화

고 윤 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교류하는 과정에 친교가 맺어지고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는것처럼 나라들사이에도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야 호상 친밀해지고 리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나라들사이에도 경제문화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면 서로 부족한것을 보충하고 힘을 합쳐 빨리 발전할수 있으며 정치적단결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510페이지)

브릭스의 출현으로 하여 변화되고있는 현 국제경제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외경제전략과 전술을 바로세우는것은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날 국제경제무대에는 브릭스로 불리우는 신흥경제집단이 등장하여 세계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브릭스는 신흥경제국들로 이루어진 경제협력체이다.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4개 나라는 서방 7개국의 경제장성속도를 압도하면서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신흥세력으로 등장하였다. 2011년에 남아프리카가 새로 가입하여 현재 브릭스의 성원국은 5개 나라이다.

브릭스는 미국의 《일극화》책동을 종식시키고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려는 지향을 반영하여 출현하였으며 그것이 출현한 이후 세계경제구조는 전면적으로 재편성되어가고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화》경제구상이 허물어지고 세계자원생산 및 분배구조가 변화되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브릭스의 출현으로 지역적인 범위에 국한되어있던 지역뿔력과 거기에 속해있는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관계는 세계적인 범위로 확대되어가고있다.

무역활동을 비롯한 대외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자면 대외시장을 넓히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브릭스의 출현은 지난 시기 지리적으로 린접한 나라들사이에만 형성되던 지역뿔력의 관례를 깨뜨린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창설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브릭스는 독자적인 경제협조형태로서의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미국이나 유럽동맹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수 있는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브릭스의 출현은 경제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결코 지리적위치가 문제로 되지 않으며 매개 나라가 가지고있는 여러가지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경제협조형태를 조직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적범위를 포괄하는 브릭스가 출현하게 된데는 일정한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은 첫째로, 브릭스나라들이 지역내의 경제협조관계가 발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일련의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데 있다.

아세안이나 유럽동맹,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조형태들은 규모나 발전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것은 다같이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는것이다.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 이러한 경제협조형태는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범위의 협소성으로 하여 자기 발전에서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지역적인 경제협조형태의 제한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적잠재력의 동원과 리용에서의 제한성이다. 다시말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의 품종과 수량, 개발능력과 소비수준, 생산능력과 시장잠재력 등 모든 경제적잠재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적인 경제협조형태의 제한성의 다른 하나는 경제협조관계의 확대발전에서의 제한성이다. 경제적잠재력의 동원과 리용에서의 제한은 성원국들에서 지역밖의 나라나 지역들과 경제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요구를 증대시킨다. 그러나 성원국들은 비성원국들과의 경제거래를 가지는데서 지역경제협조기구가 설정한 관세률의 설정, 상품수출입에서의 질량적인 규제, 위생 및 환경적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법적인 구속을 받게 된다.

브릭스나라들은 경제적련계를 각이한 대륙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적범위에 국한되어있던 경제협조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릭스의 출현은 경제협조형태의 보다 높은 단계라고 말할수 있다.

그 요인은 둘째로, 브릭스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로 리용하면 지역경제협조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경제협조를 세계적범위로 확대할수 있다고 타산한데 있다.

우선 브릭스나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세계적범위에서의 경제협조실현의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각이한 대륙에 위치하고있는 브릭스나라들은 천연자원의 품종과 수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보물고로 불리우고있다. 자원분포에서의 이와 같은 유리성은 브릭스나라들이 다른 경제협조형태들이 내포하고있는 지역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또한 브릭스나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있는 경제토대와 잠재력이 세계적범위에서 경제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된다고 타산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풍부한 자연부원과 거대한 경제적잠재력에 의거하여 세계적범위에서 경제적련계를 끊임없이 확대하고있다. 장기간에 걸치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하여 브릭스는 오늘 세계무역과 투자의 중심지역으로 되고있다.

오늘 브릭스는 국제금융뿐만아니라 세계무역과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의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국제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을 추동하고있다.

브릭스의 출현으로 국제경제관계에서 일어난 주요변화는 무역관계, 국제통화관계가 다극화되어가고있는것이다.

새로 출현한 신흥경제집단인 브릭스는 국제경제관계를 크게 변화시키고있다.

신흥경제국들은 브릭스와 같은 경제협조기구들을 창설하고 기후변화, 국제금융제도의 개혁,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협상, 유엔개혁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토의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요구를 관철해나가고있으며 21세기 국제경제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력량으로 되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은 모두 인구, 노동력, 령토, 자원면에서 대국으로 되고있을뿐만아니라 높은 경제장성속도와 생산량, 수출입규모 등으로 하여 국제경제관계에서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되었으며 그들은 자기의 막강한 힘에 의거하여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브릭스성원국들인 인디아, 로씨야, 브라질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나라들의 경제장성의 근 3~4배에 달하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오늘 세계경제발전의 성과여부를 가늠해보는 열쇠는 브릭스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브릭스의 경제력을 서방 7개국의 경제력과 비교하며 국제경제관계의 주요측면들에서 브릭스가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브릭스의 출현으로 인한 무역관계의 다극화는 국제적인 수출입무역구조에서의 변화로 나타나고있다.

최대의 신흥시장을 가지고있는 브릭스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세계경제력의 중심이 서방으로부터 이동되게 하는 세계사적사변의 리정표로 만들어놓았다.

오늘 세계무역은 발전된 나라들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브릭스를 축으로 하여 방향전환하고있다.

브릭스성원국들자체가 발전된 나라시장이 아니라 신흥세력나라시장을 주로 대상으로 무역을 진행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인 경우 대미수출의 비중이 저하되는 반면에 신흥경제국들에 대한 철광석, 콩 등 자원 및 식량수출이 늘어나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남아메리카지역내에 대한 수출이 장성하고있다.

세계무역구조가 브릭스성원국들사이 수출입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있다. 브릭스는 세계수입시장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수입규모는 2000년에 일본의 수준, 2007년에 미국의 수준과 대등해졌다. 2009년부터는 수입시장으로서의 브릭스의 지위가 더한층 강화되고있다. 그 요인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수출의 확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입이며 둘째는 확대되고있는 브릭스나라들의 내부수요이다.

브릭스의 출현으로 인한 국제통화관계의 다극화는 현존국제금융체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있다.

현시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적지위가 계속 떨어지고있는 가운데 국제경제무대에서 브릭스의 존재는 더욱더 부각되고있다

브릭스는 미팔라가 지배하는 세계금융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으며 미국주도의 세계금융질서를 허물어버리려고 하고있다.

2008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세계금융체계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세계금융위기로 하여 미국의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팔라의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고있는 것과 관련되었다. 브릭스성원국들은 세계금융체계조종을 위한 국제회의들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있다.

이와 같이 오늘 국제경제무대에서는 브릭스를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주도의 《일극화》의 경제구조가 허물어지고 발전도상나라들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및 통화, 무역관계의 다극화가 실현되어가고있다.

우리는 브릭스의 출현으로 인한 무역관계, 국제통화관계에서의 주요변화에 맞게 브릭스성원국 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미국의 세계《일극화》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야 한다.